

서울문화투데이

'청춘'소재· 동시대 정서 회화...최지원 작가 첫 개인전 개최

김지현 기자 | 2020. 05. 18

오는 22일부터 6월 13일·강남 디스위켄드룸, 'Cold Flame 차가운 불꽃'展

강남 디스위켄드룸은 신진 작가지원 일환으로 기획한 첫 전시를 개최한다. 예술경영지원센터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. 이번 기획전은 최지원 작가의 첫 개인전이기도 하다.



▲최지원,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,193.9 x 260.6cm,oil and acrylic on canvas,2020(©디스위켄드룸, 이정우 스튜디오 촬영
©ThisWeekendRoom, photo by Jungwoo Lee)

최지원 작가의 첫 개인전 'Cold Flame 차가운 불꽃'은 장식용 도자기 인형을 이미지화하는 작품을 전시한다. 그동안 작가는 주변인들을 가공한 뒤 가상의 풍경 오브제처럼 배치한 회화작업을 해왔고, 이를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다.

최 작가의 작업의 주요 소재는 '청춘'이다. '젊음'이 촉발하는 상념들을 거칠면서도 섬세한 붓 터치로 담아내는 작가는 스스로 이십 대 중반의 청춘임을 고백하며, 동시대의 정서를 회화로 기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.



▲최지원,같은 곳에서 느끼는 것은,116.8 x 91 cm,oil and acrylic on canvas,2020(©디스위켄드룸, 이정우 스튜디오 촬영 © ThisWeekendRoom, photo by Jungwoo Lee)



▲최지원 작가 'Cold Flame 차가운 불꽃'展 전시장 전경(©디스위켄드룸, 이정우 스튜디오 촬영 ©ThisWeekendRoom, photo by Jungwoo Lee)

ThisWeekendRoom

'Cold Flame 차가운 불꽃'전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디스위켄드룸에서 열리며, 전시 오프닝은 22일(금) 오후 6시다. 자세한 사항은 www.thisweekendroom.com 혹은 070-8868-9120으로 문의하면 된다.

[출처] 서울문화투데이 (<http://www.sc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2597>)